

작품해설

현대소설

□ 핵심정리

작가 : 황순원(1915~2000)

갈래 : 단편 소설, 전후 소설

경향 : 리얼리즘[사실주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재현하려고 하는 창작 태도. 19세기 중엽에 유럽에서 일어난 예술 사조로, 현실을 존중하고, 주관에 의한 개변·장식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 개성적 특질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려고 하는 경향 또는 양식이다.], 실존주의[19세기의 합리주의적 관념론이나 실증주의에 반대하여,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하는 철학. 19세기의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20세기 독일의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프랑스의 마르셀과 사르트르 등이 대표자이다.]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성격 : 사실적, 실존적, 휴머니즘적, 심리적

배경 : 6·25 전쟁 중, 어느 깊은 산 속

제재 : 낙오자들의 삶

주제 : 극한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삶의 의지, 전쟁의 비극과 삶에의 욕구,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삶의 방식, 극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

구성 : 시간의 역전적 구성

발단 : 산속을 헤매는 부상당한 주 대위와 함께 무작정 걷고 있는 현 중위와 김 일등병

전개 : 현 중위의 꿈(현 중위와 주 대위의 무언의 갈등)

위기 : 살기 위해 현 중위가 혼자 떠나버리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은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

절정 : 개 짖는 소리를 따라 걷도록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걸음을 재촉하며 총을 겨눴

결말 : 드디어 인가(人家)를 찾아낸 김 일등병과 주 대위의 죽음

특징 : 우화적인 삽화를 통해 전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극한적 상황 속에서의 경험을 소재로 하여 삶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간결한 문체로 감각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등장인물 :

주 대위 : 전투에서 허벅지 관통상을 당해 부하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지만 막상 자기 때문에 남은 사람마저 위협에 빠뜨릴 것 같아 자결을 결심하는 순간 개 짖는 소리를 듣게 되고, 김 일등병을 초가집까지 가게 한 후 죽음을 맞이하지만 삶에 대한 집념이 강한 인간형

현 중위 : 현실적인 인간으로 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는 인물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다.

김 일등병 : 부상당한 주 대위를 업고 길을 헤매다 지쳐 삶의 의욕을 상실하지만 주 대위의 마지막 명령으로 살 길을 찾는 따뜻한 인간애(人間愛)를 지니고 있는 인물

줄거리 : 주 대위, 김 일등병, 현 중위 이 세 사람은 전쟁 중에 낙오하여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에서 며칠째 헤매고 있다. 주 대위는 허벅지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있어, 다른 두 사람이 교대로 업고 무작정 남으로 향하고 있다. 현 중위는 무언(無言)중에 주 대위에게 스스로 알아서 자살하여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 달라고 압박하지만 주 대위는 이를 모른 채한다.

저녁때, 현 중위는 혼자 떠나고 둘이 남게 되자 김 일등병이 주 대위를 업고 길을 떠나지만 혼자 업고 걷는 길이라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현 중위의 일을 떠올린다. 주 대위는 서너 달 전 부산에서 만났던 한 여인을 떠올린다.

그러다가 능선 낭떠러지에서 죽은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하고 둘은 기운을 잃는다. 그러다가 멀리서 들리는 대포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된다. 주 대위는 의욕을 상실한 김 일등병을 위협하다시피 하여 초가집 근처까지 찾아오지만 자신은 죽고 만다.

출전 : <너와 나만의 시간>(1964년)

□ 해설

이 작품은 전쟁에서 낙오와 부상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는 세 명의 병사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행동,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극한 상황에 처한 세 병사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삶에 향한 본능적 욕구라는 것이다.

'너와 나의 시간'은 극한 상황 속에서는 상관과 부하라는 사회적 위계와 질서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간임을 의미한다. 생사를 넘나들며 인물들이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 극한 상황은 '너'와 '나'라는 실존적 개체만이 존재하는 시간, 즉 감추어져 있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서 현 중위는 자신의 삶을 위해 혼자 떠나지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 김 일등병은 끝까지 주 대위를 버리지 않는다. 주 대위는 자신이 그들에게 짐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삶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 대위가 마지막에 듣는 개 짖는 소리나 대포 소리 등은 실제의 소리라기보다는 소리는 김 일등병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의지의 표현에 가깝고, 주 대위가 들은 그 소리는 김 일등병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소리로서, 생존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힘이 된다. 이 작품은 생존에의 의지, 인간에 대한 믿음 등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 개 짖는 소리의 의미

: 희망, 작품의 분위기 전환

“저 소리 좀 듣게.”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푹소릴세.”
 ㉠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 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끝나까?”
 “아군의 포야. 백오십오 밀리의…….”
 이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주 대위는 지금 자기를 각각으로 죽여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 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말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도 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푹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푹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 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왔다.
 “저 소리 말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도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거두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누는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 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등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좀 서!” / 업힌 주 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중략)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 것이 얼마만 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 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보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 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짓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 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 황순원, 「너와 너만의 시간」

0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자연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긴장감과 기대감을 높이며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 ③ 짧은 문장의 나열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주인공이 서술자로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풀어 가고 있다.

0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 중위’는 원래 ‘주 대위’와 일행이었다.
- ② ‘주 대위’는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③ ‘김 일등병’과 ‘주 대위’는 아군 진지를 찾아가고 있다.
- ④ ‘주 대위’는 자결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⑤ ‘김 일등병’은 ‘주 대위’를 살리기 위해 ‘주 대위’를 업고 인가로 갔다.

03 개 짖는 소리의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극으로 치닫던 상황을 반전시키는 극적인 계기가 된다.
- ② 현실의 비극을 잊게 해 주는 몽환적 장치의 기능을 한다.
- ③ 생존 본능으로 인해 인물의 성격을 이기적으로 급변하게 만든다.
- ④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인물의 내적 갈등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⑤ 갈등 관계에 있던 인물들을 극적으로 화해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훗시 가까운 데 아군의 진지가 있나 하는 기대에서 나온 행동이다.
- ② ㉡: 아군 진지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소용없다는 실망감에서 나온 행동이다.
- ③ ㉢: 아군 진지까지 ‘김 일등병’ 혼자 가도록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다.
- ④ ㉣: ‘김일등병’을 인가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다.
- ⑤ ㉤: 결국 인가가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다.

현대 소설4

01 ② 02 ⑤ 03 ① 04 ⑤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 세 사람의 심리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세 사람은 당연히 생명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데, 주 대위는 부상을 입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이다. 김 일등병과 번갈아 가며 주 대위를 업던 현 중위는, 주 대위 스스로가 자결하기를 바란다. 당연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주 대위는 자결을 하지 않는다. 현 중위는 주 대위를 업고 가면서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을 버리고 이탈한다. 주 대위의 판단, 현 중위의 행동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 이해되는 일이다. 삶과 생명에 대한 애착은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죽음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열을 이탈한 현 중위는 발을 헛디더 굴러떨어져 죽고, 주 대위와 김 일등병도 살아날 가망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주 대위가 자결을 함으로써 김 일등병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할 때 주 대위는 어렵פות이 개 짖는 소리를 듣는다. 이 소리를 들은 주 대위는 이전과는 다른 행동과 말투로 김 일등병을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인가까지 인도한다. 작가는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작가 특유의 간결한 문장과 치밀한 묘사, 객관적인 서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주제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삶의 의지

진체 줄거리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은 전쟁 중에 나오하여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 며칠째 헤매고 있다. 이들 중 주 대위는 허벅다리엔 관통상을 입은 부상자로 다른 두 사람이 교대로 업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현 중위는 주 대위 허리에 찬 권총을 바라보는 행동을 통해 주 대위가 자살하도록 암묵적인 압력을 주지만 주 대위는 애써 모른 척한다. 그러던 중 결국 현 중위는 혼자 떠나 버리고 주 대위와 김 일등병 둘만 남게 된다. 김 일등병이 혼자 주 대위를 업고 길을 떠나지만 한 여름의 더위와 기아 때문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지는 못한다. 주 대위는 서너 달 전 부산에서 만났던 한 여인을 떠올리며 타인을 위한 희생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두 사람은 혼자 떠났던 현 중위의 시신이 능선 낭떠러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운마저 빠진다. 그러나 멀리서 들리는 대포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들리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주 대위는 의욕을 상실한 김 일등병을 위협하여 인가가 있는 곳에 도착하지만 자신은 숨을 거두고 만다.

01 작품에 대한 내재적 접근 **정답** ②

이 작품은 ‘김 일등병’과 ‘주 대위’라는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긴장감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지에 대한 대화와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권총을 겨누며 걷기를 요구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① 이 작품에는 상징적인 자연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개 짖는 소리’를 상징적 자연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근처에 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③ 이 작품은 짧은 문장들을 쓰고는 있으나 자아와 세계의 단절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짧은 문장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인물의 머릿속 생각이나 긴장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김 일등병’과 ‘주 대위’이다. 즉 ‘나’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서술자는 이야기 바깥에 존재한다.

⑤ 이 작품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즉 역전적 시간 구성이 아닌 순행적 시간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02 작중 상황의 추리 **정답** ⑤

‘김 일등병’이 ‘주 대위’를 업고 인가로 간 것은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총을 겨누며 강요했기 때문이다. ‘김 일등병’은 인가가 가까이 갈 때까지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 대위’가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해 ‘김 일등병’에게 총을 겨누며 인가로 가게 한 것이다.

① ‘주 대위’가 자신이 진작 자결했으면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고 한 점으로 보아 원래는 셋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주 대위’가 자신이 죽으면 ‘김 일등병’이 혼잣말이니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있다고 한 점, ‘주 대위’가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곳까지 가기 위해 ‘김 일등병’에게 자신을 업으라고 한 점으로 보아 옳은 진술이다.

③ ‘주 대위’가 푯소리가 들린다고 하자 ‘김 일등병’이 보인 반응, ‘김 일등병’이 그 곳까지의 거리를 물어 보려 했던 점, 자신이 죽으면 ‘김 일등병’이라도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없지 않다고 한 점으로 보아 ‘주 대위’ 일행은 아군 진지를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주 대위’가 푯소리를 듣고 자결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03 소재의 서사적 기능 파악 **정답** ①

아군 진지는 멀고, 살아날 가망은 별로 없어, ‘주대위’는 ‘김일등병’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자결을 결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들려온 개 짖는 소리는 ‘주 대위’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끄는 극적인 계기가 되어 준다.

② ‘개 짖는 소리’는 환청이 아니라 ‘주 대위’가 실제로 들은 소리이기 때문에 몽환이나 환상적 장치로 볼 수 없다.

③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총을 들이대며 자신을 업고 가라고 한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존 욕망 때문이 아니라 자포자기에 빠진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④ ‘개 짖는 소리’ 이전을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주 대위’가 자결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내적 갈등에 가까웠다. ‘개 짖는 소리’ 이후 ‘주대위’는 의도적으로 ‘김일등병’과 갈등 관계를 만들지만 그 또한 진짜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개 짖는 소리’ 이전에도 두 인물은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대위’의 희생을 극적인 화해라 설명할 수도 없다.

04 인물의 심리·정서 추리 **정답** ⑤

‘김 일등병’이 걸음을 간신히 옮겨 놓는 행동은 ‘주 대위’를 업고 인가 근처까지 오느라 지쳤기 때문이다. ‘김일등병’은 며칠을 부상당한 ‘주 대위’를 업고 이동했으며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러고나서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주대위’가 권총을 겨누는 바람에 쉬지도 못하고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데까지 ‘주대위’를 업고 왔다. 따라서 ㉠은 결국 인가가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은 ‘푯소리’가 들린다는 ‘주 대위’의 말 때문에 한 행동이다. 푯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근처에 군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군의 것인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궁금한 것이다.

② ㉡은 기대를 했던 ‘푯소리’가 사십 리나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주 대위’의 말에 실망한 ‘김 일등병’의 행동이다.

③ 이 장면에서 아군의 푯소리는 너무 멀리에서 나기 때문에 ‘김 일등병’이 ‘주 대위’를 업고는 그곳까지 갈 수 없었다. 따라서 ㉢은 ‘주 대위’가 자결을 함으로써 ‘김 일등병’의 부담을 덜어 주어 ‘김 일등병’이라도 아군 진지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다.

④ ‘김 일등병’은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한 까닭에 다시 자리에 누워 ‘눈알이 붙어 있는 거두 오늘 밤뿐야.’라면서 삶을 거의 포기하기에 이른다. 개 짖는 소리를 들어서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다고 생각한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을 살리고 싶어 한다. 이는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주 대위’가 ‘김 일등병’을 인가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다.

(앞부분 줄거리)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허벅지
리에 관통상을 입은 주 대위와 현 중위, 김 일등병
세 사람은 낙오하여 산속을 며칠째 헤매고 있다. 내
심 주 대위가 죽기를 바랐던 현 중위는 김 일등병과
함께 교대로 주 대위를 업고 가다가 홀연 사라지고,
김 일등병은 혼자 떠나라는 주 대위의 명령을 무시
하고 그를 업고 가다가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하고
울고 싶어진다.

“저 소릴 좀 듣게.” /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 “꽃소릴세.”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 소리 같은 포성이 은
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끝나까?” / “아군의 포야. 백오십오 밀
리의...”

이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
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
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제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
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
로 부딪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방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 버려야 한다. 그
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자만
이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기량이 전혀 없
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꽃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
워 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
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켜쥐어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꽃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
다가, /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 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려는군.” /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 왔다.

“저 소리 말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
다. / “㉠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
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나갔다. 개 짖
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
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
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
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
이 붙어 있는 거두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
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
을 이리 겨는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
게, / “날 업어!” 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등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좀 서!” / 업힌 주 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 “잠깐만.”
그리고는, / “앞으루!”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등
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
다. 혹시 주 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허깨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
젓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노라고 갖은 고역을 다 겪
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 대위를 향해 거
듭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
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루!” / “그대루 똑바루!”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
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
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
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보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 놓
고 있는지도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
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쫓
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
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 대위 몸뚱이
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0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속어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을 역전적으로 배치하여 이야기의 입체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인물이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격의 없는 친밀한 대화를 활용하여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⑤ 간결한 문장과 대화를 섞어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02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 ② 인물의 삶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 ③ 반어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과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거나 비평할 때 주로 사용하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재적 관점이다. 이는 작품을 작품 외적인 요소와 관련지어 감상, 비평하는 것인데, 작가의 의도나 가치관 등에 주목해 볼 수도 있고,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역사 등 현실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독자를 중심에 두고 독자에게 끼친 영향을 위주로 볼 수도 있다.

- ① 전쟁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 ② 전쟁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도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실감할 수 있군.
- ③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은 물론 심리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군.
- ④ 6·25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역사가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형상화되었군.
- 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우애를 발휘하는 모습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군.

너와 나만의 시간 -- 황순원

해제

: 이 작품은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 세 사람의 심리와 각각의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삶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진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는 들리지 않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김 일등병에게 끝까지 희망을 주어 그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전쟁의 비극과 삶에 대한 인간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답) 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사건이 간결한 문장과 인물 간의 짧은 대화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인물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그들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생사의 기로에서 지친 군인들의 짝막한 명령과 답이 있을 뿐 비속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② 과거의 이야기는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③ 인물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가 서술하고 있다.

④ 인물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명령과 지시, 그에 대한 답이 존재할 뿐 친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보기 어렵다.

02 소재의 의미 (답) ②

개 짖는 소리는 주변에 인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에 이 소리는 희망의 소리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절망에 빠졌던 인물들이 삶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주 대위와 김 일등병 사이에 드러난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개 짖는 소리’에는 반어적인 의미가 없다.

④ ‘개 짖는 소리’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개 짖는 소리’가 인물들의 과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답) ③

<보기>는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중 외재적 관점, 즉 작가와 작품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표현론적 관점, 작품에 반영된 사회 현실에 주목하는 반영론적 관점, 작품으로 인한 독자의 반응에 주목하는 효용론적 관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③은 서술자의 서술 방법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외재적 관점이 아닌 작품 자체의 절대적 의미에 주목하는 내재적 관점에 의한 감상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작가의 가치관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표현론적 관점에 의한 감상 내용이다.

② 독자가 얻은 깨달음에 해당하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의한 감상 내용이다.

④ 당대의 역사에 주목하였으므로 반영론적 관점에 의한 감상 내용이다.

⑤ 독자의 감동에 대한 것이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의한 감상 내용이다.